

광주여성가족재단 이전...성평등공동체 다짐

7월 무등빌딩으로...주요사업 발표 키움지원단 신설 윈스톱 정보 제공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추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9년간 여성가족정책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성평등 교육, 성별영향평가, 여성문화 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사회 실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재단 사무공간 이전 보고와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광주시 동구 호남동 대원빌딩 9층을 사용하고 있는 재단은 오는 7월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으로 사무공간을 이전한다. 무등빌딩 3층과 9층을 사용하며 3층은 북카페, 전시관, 사업운영실, 성평등센터, 키움지원단 등으로 쓰인다. 9층에는 대표이사실, 사무처장실, 정책개발실, 경영기획실, 대외의실, 중회의실, 자료실 등이 위치하게 된다. 이전식은 오는 9월 열린다.

무등빌딩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는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설립해 자리를 옮길 계획이다. 재단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현재 광주시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롭게 생길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에는 아시아 여성민주화운동기록관과 아시아 성평등테마공간(성평등정책 전문 도서관) 등이 들어갈 예정이며 여성일자리 및 공유경제 활성화, 가족·시민·도시의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호남의 컨트롤타워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성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교류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이다.

재단은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성인지 교육 및 여성역량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한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 강화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기능 강화 ▲성 주류화 정책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최근 키움지원단을 신설해 결혼과 임신, 출산, 돌봄 관련 지원정책을 종합해 윈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전시관 Herstory, 북카페 은세암 등에서 다양한 여성 관련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재단은 또 오는 7월 제2차 성평등정책 현안 워크숍을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페미니즘이 길을 묻다'를 주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맞은 위기를 진단하고 페미니즘 시각에서 향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윤원

태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한순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한윤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황정아 아시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민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인권 중심의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위촉한 전문강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등 중 선택할 수 있다.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는 "7월에 사무공간을 이전한다. 여성분들을 비롯해 가족·청년 등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며 "보이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가족 친화적인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게 안전한 성평등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7월 무등빌딩으로 사무공간을 이전한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심포지엄 모습.

장생불사 십장생, 기원을 넘어 희망으로

성유진 개인전 22~28일 광주국제교류센터

성유진 작가 개인전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광주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빌딩 1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주제는 '십장생-Before the Dawn'이다. 초자연적인 형태를 가진 십장생(十長生)은 열 가지 장생불사를 표상한 것으로 해·산·물·돌·구름(또는 달)·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모두가 자연생태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성 작가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의 여러 문제 속에서 새삼스레 드러나기 시작한 인간의 원초적 모습에 주목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나, 너, 우리를 넘어

서 사회 문화 인종을 넘는 초월적인 이해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왔고 그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전시작들은 십장생이 가진 장생불사의 바램이 단순한 기원을 넘어서 희망이라는 이야기로 서로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다. 성 작가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등 다양한 인종과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함께 하며 고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주국제교류센터를 전시장으로 택했다.

조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PD 과정을 연계전공한 성 작가는 동대



'십장생-Before the Dawn'

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과정을 수료했으며 뉴질랜드 인터시티 캠퍼스를 수료했다. 뉴욕, 광주, 서울 등에서 10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아시아창작 스튜디오 미디어아트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당신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최순임 조각전, 8월 2일까지 광주 신세계안과

회화와 조각 작업을 병행하는 최순임 작가의 작품은 동화적 요소가 가득하다. 호기심 가득한 소녀의 모습과 다채로운 표정의 고양이, 늘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남녀노소가 평하게 즐길 수 있는 최 작가의 작품을 병원에서 만나는 기회가 마련됐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나,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전하는 안정감은 전시다.

최순임 작가가 광주 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에서 조각전을 열고 있다. 오는 8월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Bon voyage-삶의 여행을 응원하는 인사'다.

삶을 여행이라 여기며 '여행자'라는 키워드를 통해 친근하고 유희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행자의 노래', '꿈꾸는 여행자', '냥이 스타일' 등 10점을 전시한다. 최 작가는 광주문화예술상, 오지호상 특별상, 광주시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요코하마 파견작가로 활동했다.

한편 이번 초대전에서는 이기원 조각가의 작품 3점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신세계안과는 지난해 12월 이기원 조각가의 초대전을 시작으로 지역작가들의 전시회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7월26일까지 드영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박은수 작가.

150호 대작에 담긴 '순수한 삶'

박은수 작가 '풍요의 부스러기' 전

7월 26일까지 드영미술관

종이 재료 특성 살려 조형·색채 추상

전시장에 들어서면 화려한 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멀리서 얼핏보면 다양한 패턴이 반복되는 추상 평면 회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바라보면 겹겹이 쌓아 올린 도드라진 입체감과 부피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솔한 재료 실험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질감과 변화무쌍한 색채가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다. 150호 캔버스를 빼곡히 채운 공력을 생각하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이어졌을 지난한 노동의 시간을 떠올리게 된다.

서양화가 박은수 작가가 200호, 150호 대작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 초대로 오는 7월26일까지 열리는 '풍요의 부스러기'전이다. 지하와 1·2층 3개층 전관과 미술관 로비 등을 사용한 이번 전시는 모두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 석사·박사를 취득한 박 작가는 광주시전, 전남도전, 무등미술대전 등 굵직한 3개 공모전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한 경력의 소유자다.

박 작가는 다양한 현대인의 초상을 부조기법으로 묘사한 '군상(群像)'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다. 이번 전시를 선보이는 작품들은 '순수한 삶'이라는 주제 아래 종이 재료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 다양한 조형과 색채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대학시절부터 재료학, 금속학 등에 관심을 갖고 공대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던 그는 바탕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의 결과물이 도출되는 과정을 즐기며 다양한 재료 실험을 해왔다.

캔버스에 두들기듯 올라온 재료는 신문지를 물에 불린 일종의 ' 종이 찰흙'이다. 물과 접착제, 나노 촉매를 활용해 만든 재료를 불리고 말리는 과정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하며 입체감을 부여하고 사포로 갈아내며 조형성을 만들어낸다. 그의 작품의 도드라진 특징인 '깊이'와 '음양'은 부조(浮彫)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런 효과다. 신문지를 택한 건 세상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물신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캔버스에 붙어 있는 '숨어 있는' 신문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을 은유한다.

입체감과 함께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는 바탕을 화이트로 바른 후 다양한 물감을 수차례 덮어가며 자신만의 감각으로 만들어낸 다채로운 '색감'이다. 우연과 의도에 따른 솔한 붓질로 얻어진 다양한 색감들은 전면에 부각되거나, 숨겨지면서 작품에 리듬감과 울동감을 부여한다. 지하 전시실에서 만나는 소품 위주의 작품은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또 다른 이야기를 펼친다.

고흥 출신인 박 작가는 백사장의 퇴적층과 갯벌이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을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즐기며 살았고, 그 모습들을 화폭에 풀어내려했으며 삶의 흔적이 하나 하나 쌓이듯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있다. 16년간 계속했던 강의를 모두 접고 지난 2014년부터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는 박 작가는오전 8시 30분이면 작업실에 나가 밤 12시 즈음 귀가하는 요즘이, 가장 즐겁게 작업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마산현대미술관 소속 작가로 서울과 마산 등에서 개인전을 열고 다양한 아트페어와 초대전에 참여한 박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5년만에 여는 광주전이 다. KIAF, ART BUSAN 등 다수의 국내외의 아트페어와 단체·초대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독립영화축제' 20~21일 독립영화관서 개최

지역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광주독립영화축제가 20일~21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윤수안 감독의 장편 극영화 '기억저편'을 개막작으로 총 8편의 장·단편이 상영되며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기억저편'(20일 오후 5시)은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재개발 상황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품으로 실제 중흥동 주민들이 배우 수업을 받고 영화에 직접 출연하는 '주민 참여형' 영화로 제작한 작품이다.

오후 7시 30분에는 단편 3작품이 상영된다. 김소영 감독의 '할머니와 갈나무'는 영심이 심은 갈나무가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뽑힐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반대하고 나선 영심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인영의 캠퍼드'는 대학교 졸업을 앞둔 인영과 정은의 마지막

겨울여행을 그렸다. 백정민 감독의 '휴가'는 5·18민중화운동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다.

21일 오후 5시에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이야기를 그린 임용철 감독의 '나고야의 바보들'이 상영된다.

연모의 감정을 품은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오드피쉬', 대기업 취업 설명회 때문에 대타를 구해야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에피소드 'REcycle', 빈티지 옷가게 단골손님인 이수가 마주하게 된 그날의 기억을 보여주는 '20세기 빈티지'가 상영된다. 문의 062-610-24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